

◆ 원 저

## 한국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장애인치과교육 현황

오예랑<sup>1</sup>·남옥형<sup>1</sup>·김미선<sup>2</sup>·최성철<sup>1</sup>·김광철<sup>2</sup>·이효설<sup>1\*</sup>

<sup>1</sup>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소아치과학교실, <sup>2</sup>강동경희대학교 치과병원 소아치과

### Abstract

#### CURRENT STATUS OF SPECIAL CARE DENTISTRY EDUCATION OF DENTAL SCHOOLS IN KOREA

Yea Rang Oh<sup>1</sup>, Ok Hyung Nam<sup>1</sup>, Mi Sun Kim<sup>2</sup>, Sung Chul Choi<sup>1</sup>, Kwang Chul Kim<sup>2</sup>, Hyo-Seol Lee<sup>1\*</sup>

<sup>1</sup>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sup>2</sup>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Seoul, Korea

Special care dentistry, also known as special needs dentistry, is concerned with the oral health of people who have intellectual disability, or who are affected by other medical, physical, or psychiatric issues. Dental schools must educate dental students for the competency in managing and treating individuals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us of special care dentistry education in Korean dental schools.

A questionnaire relating to the education of special care dentistry was sent to eleven dental schools in Korea via email. The result turned out that eight out of eleven schools had classroom teaching of special care dentistry, while only four had practical teaching programs. Nine schools had dental clinics for the disabled, in which two of them had special care clinics within the Pediatric dentistry clinic, and other seven in separate clinical sites.

Despite the increased interest in special care dentistry, education including classroom teaching and practical teaching was still insufficient and needed more development. This study implicated a small but valuable understanding of special needs dentistry education in Korea. [J Korean Dis Oral Health Vol.14, No.1: 7-10, June 2018]

**Key words :** Special care dentistry, Education, Dental clinic, Dental Schools in Korea

### I. 서 론

최근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장애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sup>1)</sup>.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하기 힘들며 건강상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일반적으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요한다. 이는 구강 건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는데, 장애인은 구강위생관리를 하기 어려우며 구강 건강 예방과 치료를 위한 기회가 적다<sup>2)</sup>. 또한 다른 전신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강 내 치료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 전신마취나 특수기구와 장비가 필요할 경우 많은 진료비를 지출하게 된다<sup>3)</sup>. 따라서 장애인 치과 치료에 대한 치과 의료진의 준비가 필요하다.

\*Corresponding author : Hyo-Seol Lee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Kyung-Hee University, 26, Kyungheedaero, Dongdaemun-gu, Seoul, 02447, Republic of Korea

Tel: +82-2-958-9363, Fax: +82-2-966-4572

E-mail: stberryfield@gmail.com

Received: 2018.06.11 / Revised: 2018.06.25 / Accepted: 2018.06.25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치과 의료진의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은 장애인 치과치료에 관한 문헌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다<sup>4)</sup>. 2001년 김<sup>5)</sup>의 연구에서 광주광역시와 경인지역의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 달 평균 한 명 미만의 장애인을 치료하는 치과의원이 전체의 56%로 그 수요에 비해 매우 부족하였다. Vainio<sup>6)</sup>이 미시간 대학교 치과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생들의 장애인 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장애인치과학 교육의 만족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치과 의사들은 교육과정 중에 장애인의 구강관리에 대해 충분히 지도 받지 않았고, 실제로 장애인 환자의 치료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장애인치과학 이론과 임상 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미래에 장애인들에게 올바른 구강건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 II. 연구 대상 및 방법

한국의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으로 이메일을 통한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모든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장애인 치과학 또는 소아치과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수련의가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 내용은 장애인치과학 교육 현황에 관한 내용과 치과병원 내의 장애인 구강검진 센터에 관한 두 분야로 구성되었다. 장애인치과학 교육 현황은 관련된 이론 교육과 임상실습의 유무와 구체적인 교육 시간 및 방법이 포함되었다. 모든 수집된 자료는 단순 통계 처리를 하여 분석하였다.

## III. 결 과

### 1. 치과 대학의 장애인 치과치료에 대한 교육 현황

#### 1) 이론 교육

11개의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11개 학교에서 교과과정 내에 장애인치과학 관련 이론 수업이 개설되어 있었다. 장애인치과학이 소아치과학 수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 세 곳, 소아치과학과 별도로 수업이 개설된 학교가 여덟 곳이었다. 별도로 개설된 8개의 학교 중 1개의 학교에서는 장애인 관련 수업이 선택과목과 전공필수의 두 종류로 개설되어 있었다(Fig. 1). 대부분의 수업은 1학점 이었고, 부여되는 학점 없이 수업만 진행되거나 2학점으로 강의가 개설된 학교가 각각 1곳씩 있었다(Fig. 2). 장애인치과학 수업 개설 학년은 본과 3학년으로 개설된 곳이 5곳, 4

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개설된 곳이 3곳 이었다(Table 1).

#### 2) 실습 교육

장애인 대상의 임상실습은 11개의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중 4개의 학교에서 시행 중이라고 응답하였고, 임상실습의 형태는 일주일 이내의 단기적인 오퍼레이션이나 간단한 구강검진의 형태로 행해지고 있었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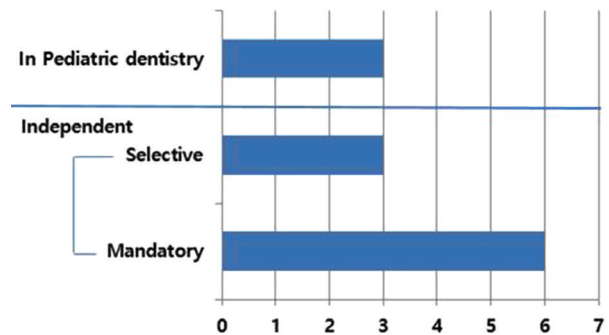


Fig. 1. Curriculum format of special care dentistry education in schools; Classroom teaching.

\* A school has both a mandatory and a selective clas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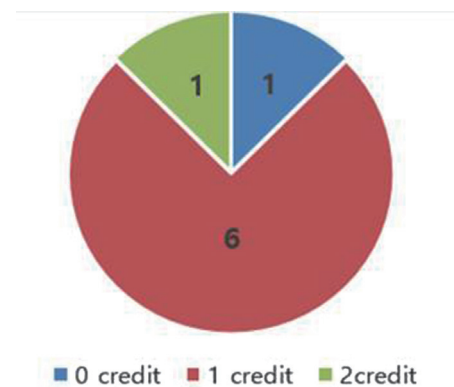


Fig. 2. Credit distribution of lecture subject; The total includes only schools which teach independent special care dentistry.

Table 1. Grade distribution of lecture subject

Grade	Number of schools
3rd year 1st semester	2
3rd year 2nd semester	3
4th year 1st semester	1
4th year 2nd semes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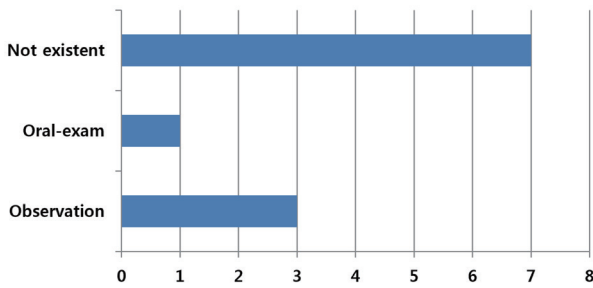


Fig. 3. Curriculum format of special care dentistry education in schools; Practical teaching.

2. 치과병원 내 장애인 치과 진료 센터

치과병원 내 장애인 치과 진료 센터가 있다고 응답한 학교는 11개 중 9곳이었으며, 장애인 치과 진료센터가 없는 두 학교는 사립대 한 곳과 국립대 한 곳이었다. 장애인 치과 진료센터가 있는 9개 학교 중 사립대 한 곳과 공립대에 있는 네 곳을 포함한 다섯 군데의 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한 곳이었다(Fig. 4). 또한 장애인 치과 진료센터 9곳 중 두 곳은 소아치과 내에 존재했으며 나머지 일곱 곳은 소아치과와 별도의 장소에서 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Fig 5).

IV. 총괄 및 고찰

한국의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의 장애인 치과 치료를 위한 치과대학 학생의 교육 현황 실태를 조사하였다.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장애인 치과학 교육체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McQuistan<sup>4)</sup>의 연구에 의하면 학생 시절에 지역사회 진료기관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쌓은 임상경험에 만족할 수록 약물 중독자, 노인, 정신 지체 환자, 저소득 계층, 에이즈 등의 소외계층의 진료에 편안하게 느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이 미래의 치과의사로서 장애인 환자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임상실습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Kim<sup>5)</sup>의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환자의 치과치료를 위한 치과의사의 훈련과정의 실질적 필요하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었고 장애인 치과 치료 시에 충분한 교육과 임상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역시 여전히 이에 대한 적절한 임상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치과학 수업이 별도로 혹은 소아치과학 내에 개설되어 있는 점에서 장애인치과학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되고 있으나, 실제적인 수업 시수가 적고 임상실습으로의 연계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수업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습 후 학생들의 태도변화에 대한 Park과 Kim<sup>7)</sup>의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병원에서 실습 및 진료과정을 통해 장애인 진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나 실제로 장애인환자를 진료하는 것에 대해서는 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이론수업이나 임상실습은 주로 졸업을 앞둔 3, 4학년 원내생을 대상으로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를 통해 장애인 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직접적으로 졸업 후에 치과의사로서 장애인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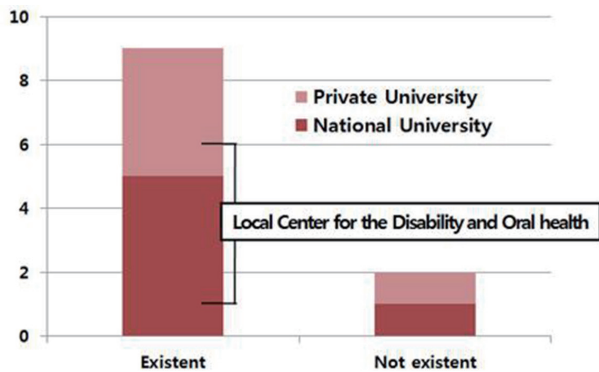


Fig. 4. Special care clinic in dental schools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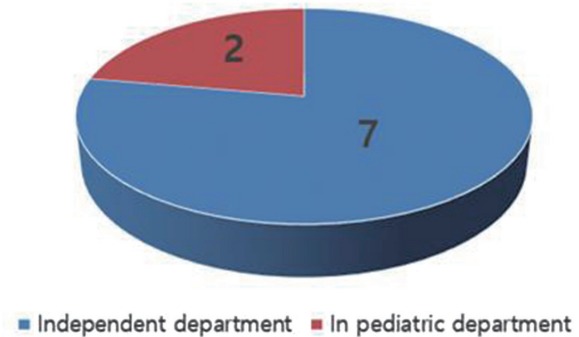


Fig. 5. Location of special care clinic.

11개 치과병원 중 9개에서 치과병원 내에 장애인 치과 진료 센터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5개 치과 병원은 전국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되었다. 전국 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로 지정된 치과병원 중 사립학교는 5개 중 1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국립대보다 임상 실습 기회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가 이러한 임상실습의 기회를 증대시킬 수 있는 많은 이점을 갖고 있음에도 실제로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의 임상실습을 위해 적극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문 등<sup>8)</sup>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장애인 환자들의 행동조절을 하기 어렵고, 보호자로부터 학생들의 치료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 또한 쉽지 않다는 점에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Perusini 등<sup>9)</sup>에 의한 연구에서는 다른 심화 교육 없이 학교 교육만으로도 학생들이 장애인에게 적절한 치과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상반된 연구 결과도 있었다. 잘 훈련된 인스트럭터의 감독 하에 체계적인 임상 커리큘럼이 갖춰진다면 학생들의 임상교육도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한국의 11개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을 표본으로 하였으나 응답자가 장애인 치과학 또는 소아 치과학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수련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이다. 또한, 설문지를 통해 객관적이지만 피상적인 질문만을 하였다. 차 후 직접적인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또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 V.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장애인 환자의 치과 진료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져 가는 것에 비해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에서의 충분한 교육과 임상훈련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치과대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장애가 있는 환자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기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의 보강이 필요하다. 또한 국내 11개 대학에서 균일한, 양질의 교육과정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 실태 조사. 1990, 1995, 2005.
2. 이공호 : 심신 장애자의 치과질환 실태보고. 대한소아치과 학회지, 10:13-23, 1983.
3. 김병식 : 장애 및 지역사회 재활사업의 이해. 2000년 장애인의 날 기념 세미나-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

건사업, 6-8, 2000.

4. McQuistan MR, Kuthy RA, Riniker KJ, et al. : Dentists' comfort in treating underserved populations after participating in community-based clinical experiences as a student. J Dent Educ, 72:422-430, 2008.
5. Kim SM : Dental Care and the State of Education and Training of Dentists for the Handicapped. J Korean Acad Pediatr Dent, 28:87-94, 2001.
6. Vainio L, Krause M, Inglehart MR : Patients with Special Needs: Dental students' educational experiences, attitudes, and behavior. J Dent Educ, 75:13-22, 2011.
7. Park SE, Kim YJ : Dental Students' Perceptions and Behavior Intentions Towards Patients With Special Care. Korean Assoc Dis Oral Health, 9:91-97, 2013.
8. 문수경 : Dental Education About Patients with Special Needs: A Survey of Korean Dental Schools and Regional Dental Centers for the Patients with Special Needs. 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과학과, 2018.
9. Perusini DJ, Llacuachaqui M, Sigal MJ, Dempster LJ : Dental Students' Clinical Expectations and Experiences Treating Persons with Disabilities. J Dent Educ, 80:301-310, 2016.